

경기도 상부소리의 특징과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 운상소리를 중심으로*

김아인** · 장동호***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uneral Songs in Gyeonggi-do: Focusing on Unsang-Sori*

A-In Kim** · 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된 상부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부소리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운상소리’ 중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커널 밀도 분석을 통해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마디 입말 류’가 북부 내륙과 서남부 평야지대, ‘두마디 넘차 류’가 북부 접경과 남부 완경사지·산록부, ‘비넘차 어이나갈까 류’가 남동부 및 충청도 접경지역에 밀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지형, 생활 기반, 장례문화, 인접 문화권과의 교류망 등 복합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토민요의 분포와 전파가 단순한 음악적 양식의 차이를 넘어 지역 환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문화지리학·민속학·음악학 간의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확장하고,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경기도, 향토민요, 상부소리, 운상소리, 문화지리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uneral songs transmitted in the Gyeonggi-do region and, through this, analyzes the cultural-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Funeral songs. Specifically,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Unsang-sori’ types, including ‘One-phrase spoken word type’, ‘Two-phrase overlapping type’, and ‘Non-overlapping Eoyina-gal-kka type’, were analyzed using GIS-based kernel density analysis. Research results show that by type, the ‘one-phrase spoken language type’ was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inland and southwestern plains, the ‘two-phrase or more spoken language type’ in the northern border regions and southern gentle slopes and foothills, and the ‘non-phrase spoken language type’ in the southeastern and Chungcheong border regions. These type-specific differences are believed to be closely related to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such as terrain, livelihood, burial culture, and networks of exchange with neighboring cultural reg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distribution and spread of local folk songs are formed not just by differences in musical style, but within the context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cultural geography, folklore, and musicolog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local folk songs.

Key Words : Gyeonggi-do, Folk song, Funeral song, Unsang-sori, Cultural geography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72).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ain3464@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I. 서론

민요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르고 전승해 온 노래로, 일상과 공동체의 정서를 반영하는 구술문화이다(이창식, 2016). 노동, 의례, 유희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민요는 사람들의 사상과 관습, 감정을 담아내며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형성해 왔다(이창식, 2002). 또한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요의 특성상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언어, 억양, 정서, 자연환경, 역사적 맥락 등에 따라 점차 변형되거나 고유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향토적 다양성은 민요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지역문화의 핵심적 유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난경, 2009; 서영숙, 2019; 윤혜연·장동호, 2021).

그중에서도 상부(喪夫)소리는 장례 의례에서 불리는 민요의 한 갈래로서,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부르던 의례적 노래이다(김승은·장윤희, 2023). 또한 상여를 장지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가창되었다는 점에서, 의례요의 성격뿐 아니라 노동요의 특성도 함께 지닌 복합적인 민요의 형태로 볼 수 있다(오용록, 2001; 류경자, 2009). 이러한 상부소리는 지역마다 고유의 가창 방식, 메김구·받음구 구성, 악기 사용 양상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임미선, 2012; 김정호·문범두, 2013).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전통 장례의례의 간소화, 가족 공동체의 해체, 장례문화의 산업화 등으로 인해 상부소리는 점차 그 전승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가창되는 전통 민요라는 특성상, 실연(實演)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령화된 소리꾼들의 부재와 함께 후속 세대 전승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정호·문범두, 2013; 김장수·장동호, 2020). 현재 상부소리는 일부 지역의 선소리꾼 기억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구)정신문화원이나 MBC 등에서 제작한 녹음 자료가 간헐적으로 남아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상부소리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민요학, 역사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윤혜연·장동호, 2023).

향토민요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민속학, 국악학, 국문학 등에서 진행되었다(이현수, 2012; 김민하, 2014; 최자운, 2017; 이윤정, 2020). 먼저, 이현수(2012)는

정선 지역의 상여소리 전승 현장을 조사하여, 장례요가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의례적 실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기능이 약화되고 축제나 공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민하(2014)는 민요 교육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민요의 서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학습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요가 단순한 가창 교육을 넘어, 지역문화 이해의 교육적 도구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최자운(2017)은 강원 지역 장례요의 전승 양상을 분석하며, 노령화와 장례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장례요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문화적 실천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내면적 연대감과 상징 체계로서의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윤정(2020)은 회다지 소리의 가창 구조와 리듬 양식에 주목하여, 소리와 움직임이 결합한 복합적 장례문화로서의 가치를 탐구하였다.

더불어 지리학계에서도 상부소리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윤혜연·장동호, 2024; 정근비·장동호, 2024; 김범수 등, 2025). 먼저 윤혜연·장동호(2024)는 경상도의 상부소리 3가지 유형에 대해 GIS 분석을 진행하였고, 축적된 상부소리 웹DB를 지형학적 분석에 접목함으로써 해당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근비·장동호(2024)는 부·울·경 지역의 상부소리를 악기 유형별로 분석해 지역별 문화권을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 문화지역 경계와 유사한 공간 분포 패턴을 보였으며, 지형과 수계망이 전파 양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김범수 등(2025)은 경상북도 지역의 상부소리 중 달구소리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공간 분포와 전파 양상을 분석하여 낙동강 수계와 산맥 등이 문화 중심지 형성과 전파 경로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지리학에서 그간 향토민요의 공간적 특성과 문화 전파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논매기소리와 같은 농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부소리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한정되었다. 특히 수도권 핵심지역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상부소리의 공간적 해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부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부소리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GIS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통해 향토민요에 대한 공간문화적 분석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요학과 지리학 간 융합적 접근을 통해 향토민요의 공간문화적 해석 가능성의 폭을 넓힘으로써,

향후 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1. 연구지역 개관 및 선정

연구지역인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경기도는 수도권 서울특별시를 감싸고 있으며, 동쪽은 강원도에 인접하고, 서쪽은 황해와 인천광역시, 남쪽은 충청남도과 충청북도, 북쪽은 북한의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에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22'~127°51', 북위 36°53'~38°16'에 해당하며, 총면적은 약 10,185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경기도청).

경기도의 지형·지세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경동지형의 영향을 받아 동쪽은 산지가 발달하며, 서쪽의 해안으로 가면서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이를 이루는 주요 산맥으로는 광주, 차령산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광주산맥은 경기도 동남부에서 충청북도로 이어지며 한강을 가르고 있다. 주요 산지로는 춘천의 광덕산(1,046m), 가평의 국망봉(1,168m), 남양주의 천마산(812m) 등이 있다. 또한 차령산맥은 충청북도에서 경기도 서남부로 연결되며, 안성의 석남산(368m), 칠장산(492m), 서운산(547m), 수원과 용인시의 광교산(582m) 등이 주요

산지로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계는 대부분 한강 유역에 속하며 대표적으로 북한강, 남한강으로 나뉜다. 이 두 강은 한강의 본류인 경기도 양평에서 만나 황해로 유입된다(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한강유역환경청). 북부 지역에서는 임진강과 그 지류인 한탄강이 주요 수계를 형성하며, 이들 하천은 감악산, 연천, 포천 등지에서 발원하여 황해로 흘러간다. 동부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으로 구성되며, 특히 북한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가평, 춘천, 남양주 등을 지나 팔당호에서 한강 본류와 합류한다. 남한강은 여주, 이천, 양평 등을 통과하며, 본류인 한강과 합류한 후 서울을 거쳐 황해로 흐른다. 남부 지역에는 안성천과 오산천, 진위천이 안성, 평택을 등지를 따라 아산만으로 유입된다. 이처럼 경기도의 하천은 대부분 충적평야를 따라 발달하여 농업 및 정주 공간 확산 및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요 유형이 분포하고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 상부소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경기도는 과거 농촌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겪은 지역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부소리의 전승 양상 또한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

먼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채록된 상부소리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지역개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1970년대 이후에 녹음된 경기도 지역의 채록 음원 중심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상부소리는 도내 31개 시·군 275개 지점에서 악보 기준 총 372곡이 채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상부소리의 유형별·지역별 분포뿐만 아니라, 그 전파 양상과 공간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악보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확인될 경우, 이를 각각의 독립된 소리로 간주하여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372곡의 악보는 997개의 소리 유형으로 세분되었으며, 이후 각 유형의 빈도와 공간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채록된 상부소리의 가창 방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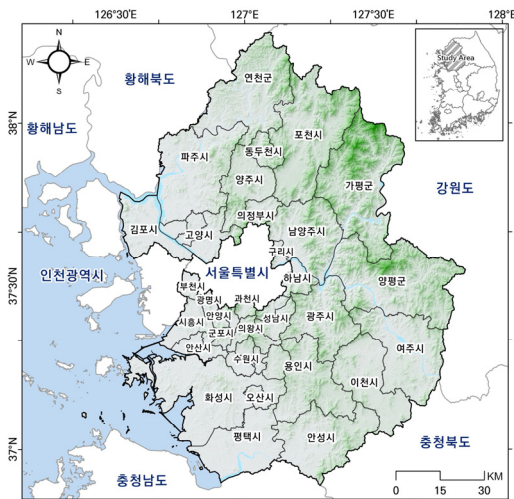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도

메김구·받음구, 음악적·사실적 특징을 바탕으로 997곡을 다시 56개의 소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분포 빈도순으로 나열하여 경기도에서 주로 분포하는 상부소리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오코딩(Geocoding) 과정을 통해 GIS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자료 중 공간적인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운상소리’를 대상으로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더불어 상부소리 전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산맥과 하천 등 지형 요소를 반영한 90m*90m 공간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DEM은 고도차, 분수계, 하천망 등 경기도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형적 장벽이나 완충 지대가 상부소리의 전파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채록된 상부소리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고, 공간적 분포 패턴이 비교적 뚜렷한 ‘운상소리’에 대한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커널 밀도(Kernel density) 기법을 활용하여 각 소리의 유형별 군집도를 도출하였다. 커널 밀도 분석은 특정 지점 데이터가 공간상에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연속적인 밀도 표면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홍유진, 2023). 분석에 앞서 적절한 Search radius 값을 설정하기 위해 ‘Calculate Distance Band from Neighbor Count’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입력 지점들이 공간적으로 최소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계 거리(critical distance)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군집 구조의 왜곡을 줄이는 데 유용하다. 또한 Neighbors 수는 공간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최소 연결망(nearest neighbor network)을 형성하는 기준값인 8을 적용하였으며(Getis and Ord, 1992), 이는 ArcGIS 공간통계 도구의 권장사항(Esri)과 선행연구(윤혜연·장동호, 2021) 사례에도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과정을 거쳐 산정된 최대값을 각 상부소리 유형별 커널 밀도 분석의 Search radius로 적용하였다.

III. 경기도 지역의 상부소리 분포 특성 및 문화지역

1. 경기도 지역 상부소리의 특색

1) 경기도 상부소리 지역별 분류 결과

일반적으로 지역 간 경계는 산맥의 능선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 지형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문화가 등질적인 지표면에서 원형으로 퍼질 수 있

표 1. 경기도 상부소리 지역별 약보·소리 수

지역	약보 수(%)	소리 수(%)	지역	약보 수(%)	소리 수(%)
가평군	8(2.2)	23(2.3)	안양시	12(3.2)	21(2.1)
고양시	33(8.9)	103(10.3)	양주시	16(4.3)	48(4.8)
과천시	6(1.6)	16(1.6)	양평군	10(2.7)	31(3.1)
광명시	1(0.3)	2(0.2)	여주시	2(0.5)	4(0.4)
광주시	8(2.2)	22(2.2)	연천군	19(5.1)	59(5.9)
구리시	6(1.6)	23(2.3)	오산시	1(0.3)	2(0.2)
군포시	2(0.5)	8(0.8)	용인시	20(5.4)	57(5.7)
김포시	17(4.6)	33(3.3)	의왕시	1(0.3)	3(0.3)
남양주시	6(1.6)	18(1.8)	의정부시	4(1.1)	9(0.9)
동두천시	5(1.3)	8(0.8)	이천시	14(3.8)	48(4.8)
부천시	3(0.8)	11(1.1)	파주시	64(17.2)	142(14.2)
성남시	2(0.5)	10(1.0)	평택시	13(3.5)	36(3.6)
수원시	4(1.1)	6(0.6)	포천시	23(6.2)	43(4.3)
시흥시	2(0.5)	5(0.5)	하남시	7(1.9)	23(2.3)
안산시	12(3.2)	33(3.3)	화성시	38(10.2)	118(11.8)
안성시	13(3.5)	32(3.2)	계	372(100.0)	997(100.0)

지만, 실제 지형에서는 하천이나 도로망을 따라 전파 속도가 달라지며, 반대로 높은 산지나 호수 등은 전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임덕순, 1990). 또한 문화가 전파되는 경로 상에서 다른 유형의 문화를 만나면 상호 충돌하거나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유재진·장동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상부소리의 세부 유형을 시·군별로 집계하여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상부소리 소리 분류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지역에서는 총 997개의 개별 소리가 추출되었다(표 1). 경기도 지역의 시·군별 상부소리 악보 수와 소리 수를 검토한 결과, 상부소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채록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뚜렷한 집중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악보 64개, 17.2%)와 화성시(악보 38개, 10.2%)는 전체 악보 수의 약 30%에 달하는 자료가 수집된 지역으로, 상부소리의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곡 수 기준으로 파주시가 142곡(1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118곡, 11.8%), 고양시(103곡, 10.3%), 용인시(57곡, 5.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전통문화의 전승 기반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거나, 민요 현지 조사와 채록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분석된다. 반면, 과천시, 군포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등 일부 도심지역은 악보 및 곡 수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향토민요의 전승이 점차 약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경기도 상부소리 세부 유형 분류 결과

다음으로 상부소리 세부 유형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수집된 상부소리는 총 56개 종류로 구분되었다. 이를 유형별 곡 수로 집계한 결과, 총 997개의 소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달고소리(391곡, 39.2%)’, ‘운상소리(336

곡, 33.7%)’, ‘우야소리(72곡, 7.2%)’. 기타(53개 종류, 198곡, 19.9%)이다(표 2).

각각의 소리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달고소리’는 땅속에 고인의 관을 하관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조성하며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로, 매장을 중심으로 한 유교식 장례가 행해지는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김범수, 2025).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상제가 전통 장례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장 방식이 일반화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달고소리’는 경기도 전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달고소리’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상부소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내 다수 시·군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채록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적 편중 없이 널리 전승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운상(運喪)’은 상여를 메고 운반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불리는 ‘운상소리’는 고인의 관을 집 안에서부터 꺼내어 장지에 이르기까지 상여를 메고 이동하면서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이소라 등, 2022). 운상소리는 장례 의식에 쓰이는 의례요이며 상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동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오용록, 2001). 무거운 상여를 메고 장지로 옮기면서 일제히 발을 맞추기 위한 기능적 목적이 담겨있어, 선후창 방식의 메김구와 받음구가 3/4박 기준으로 1마디 또는 2마디씩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음악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오랜 시간 상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실용적인 형태의 운상소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야소리’는 논매기소리의 끝 무렵에 불리는 소리에서 파생된 소리로, 풍년을 들었을 때 온갖 새들이 논에 모여드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새를 쫓는 소리이다. 여기서 ‘우야’는 새를 쫓을 때의 의성어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농요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우야소리’가 상부소리로 전이되어, 죽은 이의 영혼을 새가 하늘로 인도한다는 종교적 인식 아래에서 천도의 의미를 담아 불리기도 하였다(이소라 등, 2022).

종합하면, 경기도 지역의 상부소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파주시, 화성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요 채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상부소리 유형 중 ‘달고소리’, ‘운상소리’, ‘우야소리’가 순으로 높

표 2. 경기도에서 채록된 상부소리 종류 및 곡 수

종류	곡 수	비율(%)
달고소리	391	39.2
운상소리	336	33.7
우야소리	72	7.2
기타(53개 종류)	198	19.9
계	997	100.0

은 비중을 보였으며, 각 소리는 유교식 장례문화, 노동요적 기능, 종교적 상징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상부소리가 경기도 내 향토민요 전승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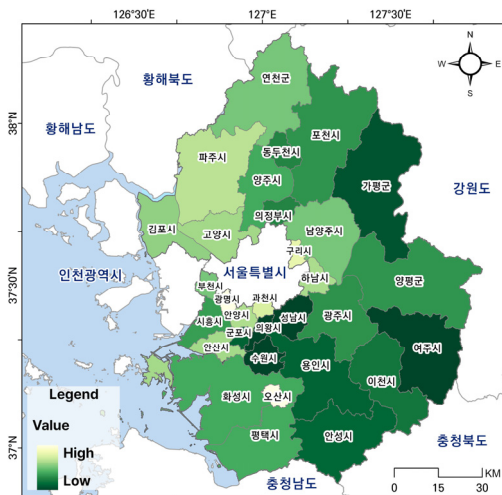
3) 경기도 상부소리 채보 곡의 음 조직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민요는 일반적으로 5음 음계(도, 레, 미, 솔, 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5음 음계의 배열 방식에 따라 ‘악조’가 결정되는데, ‘악조’란 음악의 선법, 가락, 분위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신은주, 2016). 전통적으로는 악조를 ‘평조’와 ‘계면조’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음악 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토리’라는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된다(임미선, 2014). ‘토리’는 지역별 민요의 선율 구성, 음정 처리 방식, 가창 스타일 등을 통틀어 설명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지역은 ‘경토리’가 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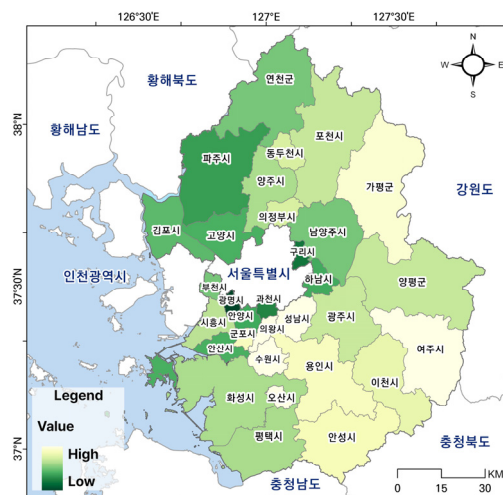
먼저 경기도 상부소리에서 나타난 음 조직 분포 분석 결과, 전통적인 향토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 미선법과 솔선법의 양상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미선법 계열이 솔선법 계열에 비해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경기

동부 및 남부의 내륙 산지 지역과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그림 2-(a), (b)). 미선법은 ‘미(M)’음을 중심으로 하는 선법으로, 전통음악에서 슬프고 가라앉은 정서를 담은 계면조 계열에 속하며,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양식인 ‘메나리토리’ 역시 주로 미선법을 사용한다. 강원도와 경기도 동부 지역은 산맥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형적 연속성은 문화의 단절보다는 오히려 전파와 확산의 통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지 지형은 지역 간 왕래를 제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 미선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솔선법은 ‘솔(S)’음을 중심으로 하는 선법으로, 상대적으로 밝고 씩씩한 분위기의 평조 계열로 분류된다. 이 선법은 주로 노동요적 성격을 갖는 상부소리 유형, 예컨대 상여를 메고 장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부르는 ‘운상소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토리’ 계통의 민요에서 주로 솔선법을 사용한다. 주요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솔선법은 경기도 북부와 중부, 특히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야 지역과 인근 농경지대에 주로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완만한 평야 지형과 교통 여건, 마을 간의 연계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노동요가 활발히 불렸던 지역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솔선법 계열의 상부소리 전승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a) 미선법 계열 분포도



(b) 솔선법 계열 분포도

그림 2 경기도 상부소리 음 조직 분포도

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미선법 계열의 출현이 더 많다는 점은 상부소리의 근본적인 성격이 장례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상부소리는 죽음을 애도하고 영혼의 천도를 기원하는 목적을 지니는 장르인 만큼, 정서적으로 암울과 애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미선법이 보다 널리 채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북부의 산악지형, 중부의 평야, 남서부의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환경을 포괄하고 있어, 지역마다 음 조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음 조식이 단순한 음악적 선택이 아닌, 지역의 민속적·지리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 경기도 지역 ‘운상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기도 운상소리의 세부 유형은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반마디 류’, ‘산염불 류’, ‘방아타령’, ‘개고리타령’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데이터베이스 상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유형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넘차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를 중심으로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3).

1) 한마디 입말 류

‘한마디 입말 류’는 짧은 한마디의 입말을 툭 던지듯이 부르는 형태의 운상소리이다. 일반적인 노래처럼 길게 이어지는 멜로디나 가사 없이, 상여꾼들이 힘을 합쳐 상여를 들어 옮길 때 순간적인 박자와 구령에 맞춰 내뱉는 간결한 외침이나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한마디 안에 짧은 구절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장례의 슬픔이나 애도의 정서를 말하듯 표현하기도 하며 고인의 사연을 전달하기도 한다. ‘어허어허’, ‘오호오호’ 등과 같이 부르며, 울음 또는 탄식의 의성음에서 비롯되어 나타난다.

‘한마디 입말 류’의 공간 분포 및 커널 밀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밀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용인시, 안성시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높은 밀도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지역의 지형 및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a), (b)).

커널밀도가 집중된 지역은 한강, 임진강 등 주요 하천 유역 또는 평야 지대를 따라 형성된 전통 농촌 촌락지와 유사한 공간 분포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논농사 중심의 농업 문화가 발달하였고, 공동체 기반 장례 문화가 지속되기 좋은 사회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또한

표 3. 경기도에서 채록된 운상소리 유형 및 곡 수

종류	유형	가창 예	곡 수	비율(%)
운상소리	한마디 입말 류	① 오호오호 ② 어허어허 ③ 오호오헤	153	45.5
	두마디 넘차 류	① 어허어허 / 어거리 넘차 어 허 ② 너허 너허호 와 / 어거리 넘차 너호 와 ③ 어호어하 / 어허리 넘차 너 하	132	39.2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① 예헤예헤 / 어이나 갈까 어 와 ② 오허허허 / 어이나 갈꼬 어 허 ③ 오호 호오호 야 / 어이나 가리 오호 하	20	5.9
	기타(9개 유형)	-	31	9.2
계			3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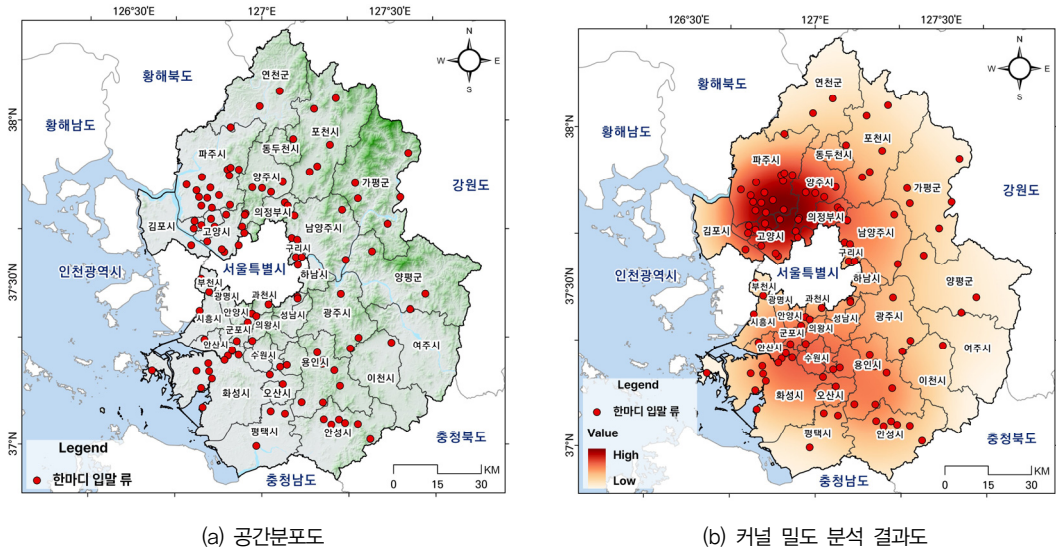


그림 3. ‘한마디 입말 류’ 공간 분포

이들은 대부분 해발 50~200m 사이의 완만한 경사 지대와 평야가 접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여가 이동하는 장레 동선의 지형적 제약이 비교적 적었던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상부소리의 전승과 지속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평군, 양평군 등 경기도 동부의 산악지형이 발달한 내륙 산지 지역과 성남시, 과천시 등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한마디 입말 류’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동부 산지 지역은 마을 간 접근성과 교류가 제한적이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장레 의례와 상여 행렬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지리적 제약이 존재했으며, 이는 상부소리의 전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시 지역은 공동체 해체와 생활 문화 단절로 인해 상부소리의 전승 기반이 일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두마디 넘차 류

‘두마디 넘차 류’는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한 마디씩 교대로 부르며, 3/4박 또는 6/8박 등의 리듬에 맞춰 규칙적으로 소리를 주고받는 방식을 말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이 유형은 상여를 메고 행렬을 이루어 이동할 때 사람들의 걸음과 호흡을 맞추는 집단노동이 행해지면서 불리는 노래로 노동요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소리는 상여를 메는 사람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힘든 운상 과정

의 고통을 분산하며, 무엇보다 일정한 보폭과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산길이나 험한 지형을 지날 때 상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두마디 넘차 류’는 기능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음악적 리듬을 통한 통일감을 형성하는 데 실용적인 소리의 유형이다.

‘두마디 넘차 류’의 공간 분포 및 커널 밀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마디 입말 류’와 비슷하게 넓은 지역에 분포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두마디 넘차 류’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경기도 전반에 걸쳐 비교적 널리 전승되었던 상부소리 유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4-(a), (b)). 그러나 ‘한마디 입말 류’와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두마디 넘차 류’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더 높은 완경사지 및 산록부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분포 지역으로는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의 북부 접경지역과 함께 안산시, 수원시, 군포시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높은 밀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두마디 넘차 류’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여 운반 시 일제히 발을 맞추어 부르는 노동요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산간부락을 중심으로 한 분산적 공동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상여 행렬이 좁고 굴곡진 지형을 따라 이동해야 했던 장레 환경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정한 리듬과 협동이 필수적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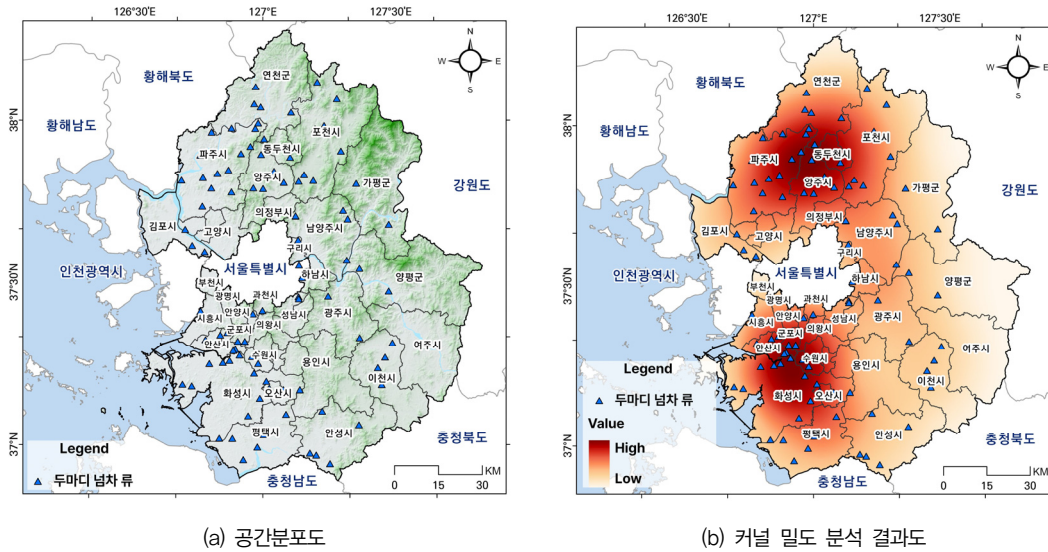


그림 4. '두마디 넘차 류' 공간 분포

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활용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두마디 넘차 류'가 보다 많이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발 100~150m 내외의 완만한 구릉 지대나 산록 경계부에 위치한 전통 마을에서 두드러지는 분포 패턴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가평군과 같은 경기도 북동부 일부 지역은 상부소리의 분포 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산맥이 경기도 중서부를 따라 북동-남서 방향으로 형성된 고지대를 이루고 있어, 해당 지역으로의 소리 전파에 지형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와 여주시 등 남동부 지역 역시 상부소리의 출현 빈도가 낮았는데, 이 지역은 남한강 중류 유역의 분지 지형에 해당하며, 기복이 완만한 광주산맥과 태백산지 사이에 발달한 대규모 화강암 분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형은 'O자형'으로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형성하여, 외부 문화 요소의 유입을 제한하고 상부소리의 전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는 특정한 반복구인 '어이나갈까'라는 가창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선창과 후렴이 이어지는 두마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의 '두마디 넘차 류'의 유형에서 '어이나갈까', '어이나가리'와 같은 특정 문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의 분포는 경기도 전역에서 비교적 넓게 분포한 특성을 보인 앞선 유형들과는 다르게 경기도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분포 특성을 보인다(그림 5-(a), (b)). 공간분포도를 살펴보면, 이 유형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등 남동부 지역과 충청도 접경지역에 주로 집중되며,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커널 밀도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천시와 여주시, 안성시 일대가 고밀도 핵심지역으로 시각화되었고, 주변부인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등으로 그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북서부 지역인 파주, 고양, 김포, 연천, 포천 등지에서는 이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희박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는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가 특정 지역 장례문화와 민요 전승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어거리넘차'류가 많은 데에 비해, 중부 지역은 '비(非)넘차 류'가 우세하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이러한 경향은 비(非)넘차류의 주요 분포 지역이 경기도 내륙보다는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더 인접해 있고, 해당 지역이 분지 지형으로, 특성상 경기도 내부와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부 지역보다 인접한 충청도 지역의 장례문화 및 민요 전승 양상이 해당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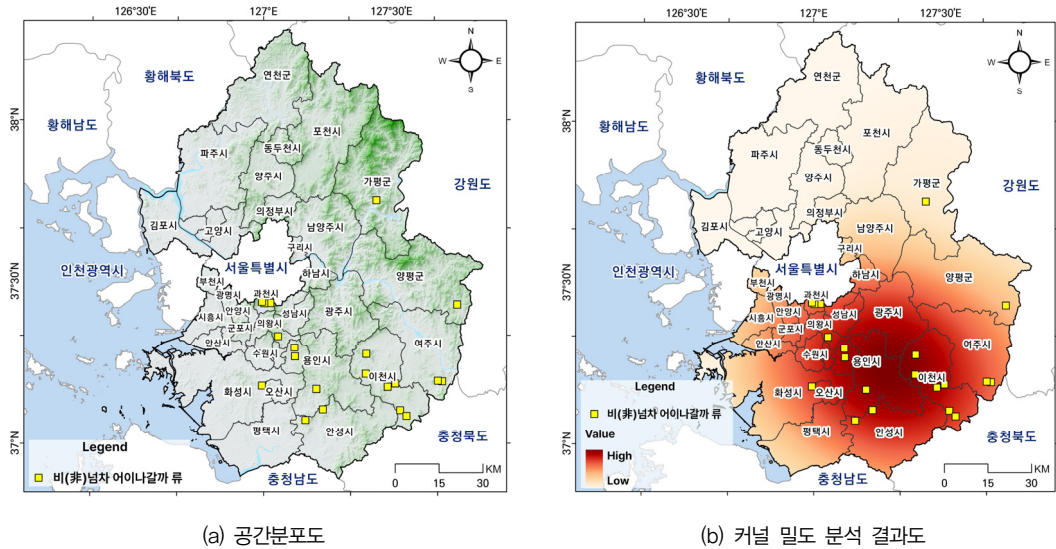


그림 5. '비(非)넙차 어이나갈까 류' 공간 분포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상부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는 각 유형이 지닌 음악적 특성과 기능적 속성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형, 수계, 문화 교류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 입말 류’는 평야와 구릉이 접하는 전통 농촌 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공동체 기반의 장례문화가 전승되기 유리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두마디 넙차 류’는 경사가 있는 산록부와 구릉지대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며, 노동요적 성격에 따라 집단의 호흡과 보폭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비(非)넙차 어이나갈까 류’는 충청도와 인접한 경기도 남동부의 분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와의 단절적 지형 속에서 인접한 충청도 지역의 장례문화 및 민요 전승 양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상부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지형적 연속성, 문화 전파의 경로, 공동체 구조 등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형성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된 상부소리의 전반적인 공간분포 특징을 규명하고, 그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

은 ‘운상소리’를 중심으로 세부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분류된 한마디 입말 류, 두마디 넙차 류, 비(非)넙차 어이나갈까 류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공간 분포 및 커널 밀도 분석을 통해 주요 분포 지역과 전파 양상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상부소리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결과, 경기도 상부소리는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파주시와 화성시 등 일부 지역에서 채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전통문화의 전승 기반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거나, 민요 현지 조사와 채록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반면, 과천시·군포시·구리시·오산시·의왕시 등 도시화가 진행된 일부 지역에서는 채록 약보 수와 곡 수 모두 낮게 나타나, 향토민요 전승이 약화된 경향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달고소리’, ‘운상소리’, ‘우야소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달고소리는 주로 유교식 장례문화와 관련되었으며, 운상소리는 노동요적 기능과 장례 의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우야소리는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적 결속을 반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상부소리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지역사회의 생활양식과 의례 구조,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문화 요소와 긴밀히 결합되어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음 조직 분석에서는 미선법과 솔선법이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장례 의례의 애도 정서를 담은 미선법

은 경기 동부 산지와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전승되었으며, 이는 지형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권 확장의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평야와 교통망이 발달한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는 노동요적 성격이 강한 술선행법이 주로 나타났고, 이는 경토리 계열의 민요 전승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부소리의 음조적이 단순한 선율 선택을 넘어, 지역의 지형, 문화권, 생활 기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긴밀하게 맞물려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운상소리의 세부 유형별 공간 분석 결과, 유형별로 상이한 밀집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한마디 입말류’는 짧은 구절을 외치듯 부르는 형태로, 장례 의례에서 상여꾼의 구령과 공동체적 호흡을 맞추는 기능을 가졌다. 공간 분석 결과, 경기 북부 내륙(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과 서남부(안산, 군포, 화성, 용인, 안성)에서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이는 한강·임진강 유역과 평야 지대 등 전통 농촌 촌락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농업 중심의 생활 기반과 개방적인 지형 조건 덕분에 장례 행렬의 이동이 용이했고, 공동체 기반 장례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가평·양평 등 산악지형 지역과 성남·과천 등 도시화 지역에서는 지형적 제약과 생활문화 단절로 인해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마디 넘차 류’는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교대로 부르며 걸음과 호흡을 맞추는 노동요적 성격이 강한 유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널리 전승되었다. 특히 고도가 다소 높은 완경사지와 산록부 마을에서 자주 확인되었으며, 파주·동두천·양주 등 북부 접경지역과 안산·수원·군포 등 남부 지역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좁고 굴곡진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 장례 행렬에서 일정한 보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리듬과 협동이 필수적이었던 장례 환경과 관련이 있다. 반면, 광주산맥 고지대나 남한강 종류의 폐쇄적인 분지 지형에 위치한 일부 지역은 지형적 제약과 문화 유입의 한계로 인해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 ‘비(非)넘차 어이나갈까 류’는 ‘어이나갈까’와 같은 특정 문구가 반복되는 두마디 구조의 유형으로, 경기도 남동부와 충청도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특히 이천·여주·안성 일대가 핵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용인·평택·오산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경기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포는 해당 지역이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분지 지형

특성상 경기도 내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어 인접 지역의 장례문화와 민요 전승 양식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상부소리의 특색과 운상소리 세부 유형의 공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향토민요의 전파와 분포가 단순히 음악적 양식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형·생활 기반·문화권 전파 경로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향토민요의 문화지리학·민속학·음악학 간의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확장하고, 향토민요 보존 및 전승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석 범위에서 3개 유형을 제외한 이외의 상부소리는 다루지 않았으며, 인접한 서울·인천 지역의 소리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 자료를 현재 행정구역에 맞추어 분석함에 따라, 동일 소리의 분포 및 전파 경로를 시기별로 세밀하게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접 문화권을 포함한 광역적 범위에서 정량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을 병행해 지역 간 전파 양상과 문화 경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하, 201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민요 교육 방법 연구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 8(1), 5-36.
- 김범수·임은진·장동호, 2025, “경상북도 상부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전파양상에 관한 연구 -달구 소리를 중심으로-,” 경관과 지리, 35(2), 108-119.
- 김승은·장윤희, 2023,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여소리 연구 -강동구 바위절마를 호상놀이와 고양 상여·회다지 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국악학회 학술대회, 22-55.
- 김영은, 2009, “경기 통속민요의 전승양상과 음악적 특징,” 예술과 과학기술, 5(3), 47-75.
- 김장수·장동호, 2020,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2), 313-323.
- 김정호·문범두, 2013, “남해군의 장례문화와 상여소리 연구,” 배달말, 52, 75-103.
- 류경자, 2009, “남해군의 장례의식요(葬禮儀式謠) 연구,” 한국민요학, 25, 71-114.
- 서영숙, 2019, “한국민요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의 구성,”

- 한국민요학, 57, 41-72.
- 신은주, 2016, “한국 민요 선법(토리)의 연구 성과 검토 및 논점,” 한국민요학, 46, 153-195.
- 오용록, 2001, “상여소리를 통해본 노래의 형성,” 한국음악연구, 30, 241-261.
- 유재진·장동호, 2014, “충청남도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의 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 지형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지형학회지, 21(2), 11-23.
- 윤혜연·장동호, 2021, “지형요소를 활용한 전라도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아리시고나류, 산아지 곡, 방개 류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8(2), 71-85.
- 윤혜연·장동호, 2023, “경기도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 및 전파 특성 분석 - 상사 류, 방아 류, 몸돌 류를 사례로 -,” 한국지형학회지, 30(2), 1-11.
- 윤혜연·장동호, 2024, “웹 데이터베이스와 지형 자료를 활용한 경상도 상부소리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31(2), 33-45.
-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2, 「경기도 논매기소리음원집」,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민족음악연구소.
- 이윤정, 2020, “회다지소리춤의 성격,” 한국민요학, 59, 197-217.
- 이창식, 2002, “전통민요의 자료 활용과 문화콘텐츠,” 한국민요학, 11, 173-202.
- 이창식, 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 이현수, 2012, “정선장례요의 전승현장 연구 - 사설과 선율을 중심으로 -,” 한국민요학, 35, 223-254.
-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와의 관계-」, 법문사.
- 임미선, 2012, “전라북도 장례요의 유형과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학, 36, 361-417.
- 임미선, 2014, “학교에서의 민요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민요학, 42(3), 205-236.
- 정근비·장동호, 2024, “부·울·경 지역 상부소리에 사용된 악기별 공간 분포 특성에 따른 문화지역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13(2), 189-199.
- 최난경, 2009, “논매는 소리의 기능별 분류와 분포에 대한 고찰 - 경상도 논매는 소리와 전라도 논매는 소리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51, 298-336.
- 최자운, 2017, “강원지역 장례의식요 전승의 현재적 양상과 의의,” 민속연구, 35, 337-360.
- 홍유진, 2023, “연령에 따른 거주지의 공간 분포 특성과 변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2(3), 475-489.
- Getis, A. and Ord, J.K.,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24(3), 189-206.
- 경기도청, <https://www.gg.go.kr>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
- 한강유역환경청, <https://me.go.kr/hg/web/main.do>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Esri, <https://pro.arcgis.com>
- 교신 : 장동호,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이메일: gisrs@kongju.ac.kr)
- Correspondence: Dong-Ho Jang,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gisrs@kongju.ac.kr)
- 투고접수일: 2025년 8월 11일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8월 27일